

“5·18은 새 세상 향한 민중들의 염원 표출”

5·18기록관 2차 광주정신 포럼
김상봉 교수 ‘5·18 세계사적 의미’
“모든 인류 공존 할 세상 꿈꿔다”

“1980년 5월27일 시민군이 전남도청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계엄군과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희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5·18의 불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역사에 바칠 수밖에 없었다. 5·18은 프랑스혁명, 동학처럼 잠든 나라를 꿈꾸는 민중들의 갈망이었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16일 광주 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제2차 광주정신포럼’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5·18의 세계사적 의미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항쟁의 역사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양은 자기의 자유를 위해 남을 노예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제국주의 원리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인류의 평화적 공존을 꿈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 민주항쟁은 크게 동학혁명의 무장 항쟁, 3·1운동의 비폭력 저항, 전태일의 자기 폭력을 통한 저항 등 세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광주 5월 항쟁에서는 세가지 양상을 모두 살피볼 수 있다. 5월18일 계엄군의 과격 진압에 저항한 비폭력 시위는 5월21일 무장 항쟁으로 전환됐고, 5월27일 옛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남은 시민군들은 자기 폭

력으로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항쟁 마지막 날 죽음을 각오하고 도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5·18 불꽃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전대일처럼 자신의 생명을 역사의 제단에 제물로 바친 것이다”고 분석했다.
광주시민들이 항쟁에 참여하게 된 원동력에 대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국가 폭력’이라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됐고, 같이 먹고 같이 싸우는 공동체를 통해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이상적 국가관을 확립했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동학에서 시작된 낡은 국가 이념에 대한 거부는 5월 항쟁에서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려는 열망으로 도달했다”며 “이는 서

양적 국가 이념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유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전선,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5·18 역사를 세계로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고 당부했다.
나외갑 5·18기록관장은 “김상봉 교수의 이번 발표는 5·18연구자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항쟁의 세계사적 의미를 분석했다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흔살 5·18의 철학적 담론-대중적·보편적 의미의 5·18 정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김 교수의 ‘자기의 권리와 타인의 고통 사이에서’ 기조 발제에 이어 전진희 인권인문연구소장과 김정환(전 국방부 5·18특조위 조사관) 서강대 연구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국화나라로의 초대 2019 국향대전 개막을 이틀 앞둔 16일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체험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형형색색의 국화를 둘러보고 있다. 2019 국향대전은 ‘임시정부 100년! 백만송이 함평국화와 함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7일간 열린다. ▶관련기사 13면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최근 5년간

안전벨트 미착용 181명 사망

광주·전남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8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광주 13명, 전남 168명 등이었다. 특히 전남은 경기(181명), 경북(171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
소 의원은 “안전띠 착용이 보편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안전벨트 착용에 소홀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 등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올 충장축제 방문객 40만명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

‘제16회 추억의 충장축제’ 방문객이 전년 축제 보다 10만여 명이 늘어난 40여만 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16회 추억의 충장축제’에 일평균 10만여 명, 전체 39만738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동구는 금남로 일대 KT통신사 기지국에 접속된 휴대전화 숫자를 기반으로 방문객을 분석했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중 외지인은 30만5087명(외국인 558명 포함), 동구 주민은 9만2295명으로 나타났다.
축제기간 중 일일 방문객수는 ‘충장퍼레이드’가 진행된 지난 5일에 가장 많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사립유치원 53곳 회계 부정 33억 부당사용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53곳이 회계 부정 등을 통해 33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53개 유치

원이 예산 32억9579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회수 17억 3253만원, 보전 13억7250만원, 반환 1억 6422만원, 환급 2000만원 등을 명령했으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유치원 관계

자 등 114명에 대해선 징계요구 조치를 했다. 이 밖에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 20곳을 비롯한 총 26곳을 고발(수사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감사 거부 등에 대한 20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사립유치원들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16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용 기자 pboxe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0 달뜨기 20:10
해질 17:56 달질 09:29

아침바람 찬바람

동해상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았다.

광주	구름 많음	12/21	보성	구름 많음	8/20
목포	구름 많음	13/21	순천	구름 많음	11/22
여수	구름 많음	14/20	영광	구름 많음	10/21
나주	구름 많음	9/21	진도	구름 많음	11/21
완도	구름 많음	12/21	전주	구름 많음	11/21
구례	구름 많음	9/22	군산	구름 많음	11/21
강진	구름 많음	10/22	남원	구름 많음	9/21
해남	구름 많음	9/21	축산도	구름 많음	15/19
장성	구름 많음	9/2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0~1.5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2.0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9:05	03:55
21:33	16:28	
여수	04:25	10:54
	16:50	22:55

◇주간 날씨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	☀️	☀️	☀️	☀️	☀️	☀️
12/21	12/22	12/22	11/22	11/22	11/21	11/21

광주 10년새 선천성 이상아 출생 3배 증가

출산 앞서 부모 건강 지원해야 하는 신생아를 말한다.
더 큰 문제는 출산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선천성 이상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의 경우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552명에서 2018년 1595명으로 10년 새 2.9배 증가했으며, 전남은 2009년 614명에서 2018년 1337명으로 2.1배 늘었다. 미숙아 역시 광주는 2009년 220명에서 2018년 414명으로, 전남은 같은 기간 399명에서 448명으로 증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출산 앞서 부모 건강 지원해야 하는 신생아를 말한다.
더 큰 문제는 출산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선천성 이상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의 경우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552명에서 2018년 1595명으로 10년 새 2.9배 증가했으며, 전남은 2009년 614명에서 2018년 1337명으로 2.1배 늘었다. 미숙아 역시 광주는 2009년 220명에서 2018년 414명으로, 전남은 같은 기간 399명에서 448명으로 증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시교육청 시민 소통 SNS 채널 확대

광주시교육청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 하기 위해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터넷 매체 활성화 조례’를 공포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광주교육 홍보 인터넷 매체 활성화 계획’에 따라 블로그를

신설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SNS 매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홍보 기자단도 현재 28명에서 내년엔 300명 내외로 확대한다.
반면 기존 제작하던 오프라인 매체인 소식지 등은 축소하기로 했다. 방학기간(4개월)을 제외하고 매달 1만부가 발행돼 교육기관, 시민에게 전달됐던 ‘광주교육 소식지’는 분기별 발행으로 개편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